

홍콩무역박람회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으십시오



홍콩무역발전국(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HKTDC)은 세계적인 수준의 전시회, 온라인 시장 그리고 출판물을 통해 공급자와 바이어간의 무역증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홍콩무역발전국이 주최하는 연간 30 여 개 전시 중 8 개는 동종산업 전시 중 아시아 최대의 규모이며, 3 개는 세계 최대의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본 박람회들은 한국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는데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무역발전국의 부사장인 Mr Benjamin Chau 은 홍콩과 홍콩무역발전국 서비스의 강점을 홍보하기 위해 2010. 6 월 제주도과 서울을 방문하여 한국과 홍콩간의 밀접한 무역관계를 구축, 상호간의 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합니다.

홍콩의 독점적인 경쟁력

홍콩은 국제무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정치, 경제와 같은 사회적 안정은 한국기업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특히, 홍콩의 자유무역정책, 수준 높은 인프라시설과 더불어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6 년 연속 세계 최고의 자유 경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홍콩의 독점적인 경쟁력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4 대 강국 중 하나이자 홍콩의 6 번째 무역파트너입니다. 홍콩과 한국의 무역가치는 2010 년 첫 4 개월 동안 47% 증가한 USD73 억(약 8 조 9 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한국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하여 홍콩은 무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중국의 증산층 인구 증가로 경제전망이 촉망되는 가운데 2010 년 첫 4 개월 동안 수출은 29% 가 증가한 반면 수입은 60%가 급증하였습니다. 홍콩이 중국진출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한국기업은 홍콩무역발전국 주최 전시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홍콩무역발전국 주최 전시들은 한국기업에게 효과적인 비즈니스 장을

제공합니다. 지난 3 년 동안 한국에서는 매년 500 개 이상의 참가업체와 8,500 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였으며 특히, 전자박람회와 조명박람회는 팔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제품과 서비스 홍보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

한국은 최첨단의 인프라시설 및 선진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와 전자제품은 수 년간 홍콩과 한국간의 주요 무역 품목이 되어왔습니다. 따라서 홍콩무역발전국이 주최하고 있는 세계 최대 홍콩추계전자박람회(10.13-16)는 한국의 혁신적인 제품 홍보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이자 세계적인 최신제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작년 홍콩추계전자박람회에 처음 참가한 Bukang Sems 는 박람회를 통해 Raycop 브랜드를 런칭 하였고, 전세계 전문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박람회 기간 중 현지 시장 진출에 적합한 파트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홍콩추계전자박람회 기간에는 전자부품박람회(10.13-16,2010)가 동시 개최되고 홍콩추계전자박람회는 정보통신박람회(4.13-16,2011)가 동시 개최되어 바이어들은 관련제품 및 서비스를 동시에 만날 수 있습니다. 병행전시들과 더불어 2009 년 홍콩전자박람회에는 한국에서 170 개 이상의 참가업체와 3,600 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였습니다.

아시아 최대 홍콩추계조명박람회(10.27-30)의 성장에 힘입어 작년, 추계조명박람회가 새롭게 런칭 되었습니다. 2009 년 홍콩조명박람회는 한국에서 25 개 이상의 참가업체와 800 명 이상의 바이어가 방문하였고 이는 2008 년도 추계조명박람회 대비 두 배 규모의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는 추계조명박람회는 서울반도체, 대전 DMP 그리고 필룩스와 같은 한국업체들이 참가를 확정, 최신 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홍콩식품박람회(8.12-16)는 중식, 양식, 아시아 요리 등 세계 각지의 식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축제입니다. 본 박람회는 일반 관람객 방문으로 제품에 대한 현지 반응을 빠르게 확인 할 수 있는 Public Hall 과 전문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Trade Hall 로 구분되어 있어 기업이 원하는 효율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가국 중 두 번째로 규모가 큰 한국관이 Grand Hall 에서 제품을 선보이며 대구바이오산업지원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 대전무역협회, 농수산물유통공사 경남지사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서 국가관을 구성합니다.

본 박람회 기간 동안 홍콩국제차박람회(8.12-14)가 동시개최 됩니다. 2009 년 홍콩은 60% 이상의 차 종류 및 다기를 한국에서 수입하였고, 2010 년 첫 4 개월 동안 이미 작년 동기간에 비해 6% 증가한 양을 수입하였습니다. 또한 동기간 개최되는 홍콩국제한의학 & 건강제품 박람회 및 컨퍼런스(8.12-16)는 한국에서 작년 대비 75% 증가한 규모로 참가합니다.

홍콩무역발전국은 이 밖에도 성장 잠재력이 있는 완구, 유아용품, 패션, 보석, 가정용품, 선물용품, 와인, 광학제품, 환경제품 그리고 의료용품 등을 위한 무역박람회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람회는 수준 높은 참가업체와 전문바이어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비즈니스 장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 동향과 유용한 비즈니스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시장 진출 및 발전을 위한 최적의 플랫폼입니다.

문의:

[홍콩무역발전국 본사]

Chloe Kiosk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uncil

Tel.: (852) 2240 4356

Fax: (852) 3521 3189

Email: chloe.kiosk@hktdc.org

[홍콩무역발전국 한국사무소]

아이피알포럼

Tel: 02-551-7070

Fax: 02-551-7060

Email: emily@ipr.co.kr